



福音新聞 /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6年2月1日 (日) 第857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発行人 / 張慶泰・編集人 / 鄭守煥
印刷所 青丘文化社

전도주일
설교

일단 시작하라

<요한복음 12:24>

김 형 진 목사 (치쿠마비전전도소)



애플이라는 회사는 컴퓨터와 핸드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평정한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도 시작은 차고(車庫)였습니다. 창업자는 자신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명한 회사들의 시작은 집이나 창고, 학교 기숙사 같은 곳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일단 뭐라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무실이나 투자자가 없어도 자기들의 집에서라도 시작했을 때 길이 열리고 투자를 받게 되고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될거라는,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그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다면 회사는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뜻과 의지가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날씨가 좋은 안 좋은, 형편이 좋은 안 좋은 일단 심어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박히면 너무 아플 것 같고 사람들로 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도 참지 못하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결정했다면 지금부터 읽는 것입니다. 이웃을 전도하기를 바란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만 짜고 일정을 짜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시간을 낭비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획만 짜다가 끝이 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을 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만 하고 미루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성격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말 잘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은사가 있든 없든 교회에 와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사람이 많은 적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일본복음교단 교회가 있는데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를 한다고 저희 아이들도 오라고 해서 갔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중학생인 저희 아이들까지 8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3-4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화려한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내년엔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비록 한국교회에 비해 인원도, 프로그램도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교회의 간절함과 불평없이 그 시간을 함께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들 숫자가 적다고 성경학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프로그램이 변변한 것이 없다고 성경학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했으면 어떨까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환경이 좋은 좋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교회와 신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상황을 핑계삼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선한 열매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든 어떤 일이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사역 위에 놀라운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총회전도주일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와 신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서지방회

2026년 신년사경회 개최 박영철목사를 강사로 오사카와 교토에서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주최하는 2026년 신년 사경회가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월 11일(주일)과 12일(월)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서남지방회의 츠시마메구미전도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영철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였다.

첫째 날인 11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오사카교회(참석 80명)에서, 「땅 끝에서부터」(이사야 41장 8 ~ 14절)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인 1월12일(월) 오후 6시부터 교토교회(참석46명)에서, 「버리지 않으신다」(요한복음 14장 12 ~ 18절)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올해도 오사카 교회와 교토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박영철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고린도후서 4장 7 ~ 11절)라는 주제로 교역자 세미나(참석 22명)가 개최되었다. (보고 : 박시영목사)



서부지방회

한일교류 신도대회 개최 일본기독교단 고베영광교회에서

1월 12일 성인의 날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 공동 주최로 제40회 한일교류신도대회가 교단 고베영광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84년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 사이에 체결된 선교협약을 바탕으로, 서부지방회와 교단 효고교구가 협약 이행을 목표로 1985년 이래 매년 1월 성인의 날에 개최해 온 것이다. 이번이 제40회 기념대회가 되었다. 참가자는 95명(서부 지방회 31명, 효고 교구 64명), 대회 위원장은 모리 쇼이치 씨(교단 고베 영광교회), 부위원장은 최 미혜자 장로(무코가와 교회)였다.

개회 예배에서는 마나베 요셉 전도사(교단 고베 영광교회)의 “사랑의 명령”이라는 설교 후, 사토 시게요시 목사(교단 고베 영광교회)의 집례로 성찬에 함께 참여했다. 예배 후, 야스이 슈지 씨(교단 고베 영광교회)와 임영재 장로(무코가와 교회) 두 사람이 본 대회의 40년 역사를 돌아보았다. 전만 15년간 장년들의 열띤 토론 중심의 대회에서, 후반 25년간 여성과 청년들이 합류하여 함께 찬양하는 것이 큰 목표가 된 본 대회의 변천사가 소개되었다. 또한 귀중한 사진집 슬라이드 상영으로 영상으로도 본 대회의 역사를 확인했다. 오후부터는 양율자 권사(고베 교회)의 사회로 모리 나오 목사(효고 교구 총회의장)와 서부 지방회 유의 NKGB(한일 합동밴드)의 찬양과 기도 콘서트가 있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의 양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돕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이 대회가 40회나 계속된 원동력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다. 협약이 체결되자마자 즉시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1년 이내에 제 1회 대회를 실현한 초창기 선배님들의 고생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하늘로 소천하신 분들도 많지만, 천국에서도 분명 한일 교제를 계속하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보고 : 무코가와 교회 임영재)



캐나다장로교회(PCC)에서 청년 인턴이 KCCJ에

이번에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캐나다장로교회(PCC)에서 인턴으로 김서윤(Sopia KIM) 씨가 일본에 왔다.

김서윤씨는 2001년 한국에서 태어나, 태어난지 8개월에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다고 한다. 목사인 아버지의 목회지 캐나다장로교회에서 성장하여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후 캐나다장로교회 총회 사무국의 국제사역부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인턴으로 온 목적은 100년 전부터 캐나다 장로교회가 선교에 힘써 온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교제와 젊은 세대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일본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일본어에 조금 익숙해지는 5월경부터는 중부, 관서, 서부, 서남의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돌며 과거 선교활동을 하였던 PCC 선교사들의 흔적을 답답하면서, 또한 재일동포 차세대와의 교제를 갖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외기협’ 집회의 전체 일정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복음신문 3월호 휴간의 알림

사정에 따라 복음신문 2026년 3월호를 휴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기협(外キ協) 제40회 전국협의회 및 전국집회 개최

1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일본복음루터 동경교회(1일차), 일본기독교교회관(2일차)에서 외기협 제40회 전국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합협의회(외기협)”가 주최했으며, 일본 각 교파 및 단체와 각 지역 외기연에서 40여명이 참가했다(그중 KCCJ 참가자는 4명).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라는 제목으로, 외기협 사무국장인 秋葉正二목사가 개회 설교를 맡았으며, 한국NCC 교회와 사회위원회 간사 송기훈목사가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와 카나가와 신문의 이시마시 마나부(石橋学)씨의 가와사키 사쿠라모토에서의 배외주의 반대활동에 대한 특별보고가 있었다.

2일차에는 오오쿠보 마사요시(大久保正禎)목사가 외기협 제3기조직, 운영안, 森小百合씨가 2026년 활동계획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2일차 오후에는 각 교단, 지역 외기련에서 활동보고와 3기 조직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고, 전체협의회를 통해 3기 조직, 예산, 활

동계획에 대해 승인을 하고 성명서를 승인하였다.

23일 밤에는 와세다봉사원 리버티홀에서 배외주의에 NO! 함께 사는 사회에 YES! 라는 주제로 전국집회가 약 60여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일본NCC大嶋果織총간사의 설교와 배외주의의 일본을 함께 살아가는 일본인, 난민, 영주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국협의회와 전국집회를 통해 제3기를 시작하게된 외기협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과제를 우리 총회와 일본 내 모든 교회의 선교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기협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보고 : 신용섭)



謹賀新年

<関東地方会>

- 会 長: 金迅野牧師(横須賀)
- 副会長: 鄭有盛牧師(東京東部)、李永久長老(横浜)
- 書 記: 姜章植牧師(品川) · 副書記: 田一光牧師(水戸)
- 会 計: 金惠珍長老(川崎) · 副會計: 金恩英長老(東京第一)
- 宣教伝道部長: 李明忠牧師(横浜)
- 教育部長: 姜英珍牧師(東京第一)
- 社会部長: 金伸禹牧師(東京中央)
- 信徒部長: 具滋佑牧師(東京希望)
- 考試部長: 金根湜牧師(ハンサラン)
- 財政部長: 金惠珍長老(川崎)
- 監 査: 申大永長老(東京希望)、柳町功長老(横浜)

<中部地方会>

- 会 長: 李珍容牧師(豊田めぐみ)
- 副会長: 許光涉牧師(岡崎)、崔宰熏長老(名古屋)
- 書 記: 蔡銀淑牧師(大垣) · 副書記: 金成彦牧師(豊橋)
- 会 計: 高在道長老(名古屋) · 副會計: 金珍明長老(長野)
- 伝道部長: 金明均牧師(名古屋)
- 教育部長: 金成彦牧師(豊橋)
- 社会部長: 李大宗長老(名古屋)
- 青年部長: 金炯振牧師(千曲ビジョン)
- 財政部長: 高在道長老(名古屋)
- 女性部長: 金恩淑執事(豊橋)
- 考試部長: 李珍容牧師(豊田めぐみ)
- 韓・日宣教協力委員長: 蔡銀淑牧師(大垣)
- 電磁メディア委員長: 崔和植牧師(長野)
- 監 査: 呂和淑勸士(名古屋)、曹述燮勸士(名古屋)

<関西地方会>

- 会 長: 金鍾權牧師(平野)
- 副会長: 宋南鉉牧師(大阪第一)、吉井秀夫長老(京都)
- 書 記: 裴貞愛牧師(枚岡) · 副書記: 新井由貴牧師(京都南部)
- 会 計: 金光成長老(大阪) · 副會計: 高慶美長老(大阪)
- 伝道部長: 朴榮子牧師(豊中第一復興)
- 教育部長: 金大賢牧師(堺)
- 社会部長: 申容燮牧師(KCC)
- 青年部長: 梁陽日長老(大阪)
- 女性部長: 金仁姬勸士(京都)
- 考試部長: 趙永哲牧師(大阪北部)
- 視察部長: 金鍾權牧師(平野)
- 壮年部長: 森克之長老(大阪)
- 宣教協力部長: 宋南鉉牧師(大阪第一)
- 納骨堂委員長: 朴成均牧師(和歌山第一)
- 會計監査: 森克之長老(大阪)、嚴敏俊長老(京都)

<西部地方会>

- 会 長: 韓世一 牧師(神戸)
- 副会長: 中江洋一牧師(広島)、白承豪長老(神戸)
- 書 記: 尹鐘憲牧師(明石) · 副書記: 孫信一牧師(西宮)
- 会 計: 崔美惠子長老(武庫川)
- 副會計: 尹聖哲長老(神戸教会)
- 伝道部長: 韓承哲牧師(神戸東部)
- 教育部長: 尹鐘憲牧師(明石)
- 社会部長: 李相徳牧師(三次)
- 信徒部長: 李重載牧師(川西)
- 考試部長: 崔亨喆牧師(岡山)
- 視察部長: 中江洋一牧師(広島)
- 宣教協力部長: 韓世一牧師(神戸)
- 監 事: 李重載牧師(川西)、金哲鎬長老(神戸東部)

<西南地方会>

- 会 長: 尹善博牧師(博多)
- 副会長: 趙顯奎牧師(別府)、高文局長老(別府)
- 書 記: 林明基牧師(福岡)
- 会 計: 崔日承長老(博多)
- 伝道部長: 辛治善牧師(福岡中央)
- 教育部長: 郭鏞吉牧師(沖縄)
- 社会部長: 金承熙牧師(下関)
- 青年部長: 趙顯奎牧師(別府)
- 女性部長: 金承熙牧師(下関)
- 宣教協力部長: 李惠蘭牧師(折尾)
- 視察部長: 朴榮喆牧師(対馬めぐみ)
- 考試部長: 林明基牧師(福岡)
- 歴史編纂委員会長: 金聖孝牧師(熊本)
- 財政部長: 崔日承長老(博多)
- 監 査: 高文局長老(別府)、郭鏞吉牧師(沖縄)

<全国教会女性連合会>

- 会 長: 宋福姫勸士(名古屋)
- 副会長: 崔美惠子長老(武庫川)
- 書 記: 高慶美長老(大阪) · 副書記: 李正子勸士(名古屋)
- 会 計: 李敏禮勸士(西新井) · 副會計: 金惠珍長老(川崎)
- 教育局長: 李好子執事(小倉)
- 宣教社会局長: 姜志鮮長老(大阪)
- 財政局長: 李奈々執事(平野)
- 心のケア局長: 尹豊子勸士(神戸)
- 関東会長: 李銀珠勸士(横浜)
- 中部会長: 金恩淑執事(豊橋)
- 関西会長: 柳綏美勸士(京都南部)
- 西部会長: 梁律子勸士(神戸)
- 西南会長: 任永淑執事(折尾)
- 會計監査: 朴英遠長老(品川)、俞貞惠勸士(武庫川)
- 顧 問: 李炫知勸士(神戸)
- 総 務: 石橋真理恵伝道師(堺)

2026년 제40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자 집회 선언

우리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外基協)는, 2026년1월22일~23일에 제40회 전국협의회를 일본복음부터 신주쿠교회와 일본기독교교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차별과 배외주의에 맞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 살려주는> 교회와 사회」라는 주제로, 라는 주제아래 각 지역 외기련(外基連) 및 외기협(外基協) 가맹 각 교파·단체 대표자 등 39명이 모여 <외국인 기본법> <인권차별 철폐 기본법> <난민 보호법>의 현실과 재일 코리언·이민·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향하여 한국 사회의 균열과 불평등에 맞서는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 그리고 가와사키(川崎)에서 증오(이하, 헤이트)에 맞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문 채취 거부로 시작된 외기협 운동 40년의 도달점을 확인하고, 배외주의를 극복하며 외국인 주민과의 공생 사회를 실현하는 새로운 선교 플랫폼으로서 「제3기 외기협」 창설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조 보고에서는 정권에 의한 전쟁 준비와 배외주의 정책이 민간에서의 증오 발언(Hate Speech), 증오 범죄(Hate Crimes)를 악화시키고 외국인 주민을 차별과 배제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며, 이에 대해 “헤이트에 NO!” 라는 목소리를 시민과 함께 내면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법에서 이어져 온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억압을 극복하는 일본 사회의 책임을 재인식하고, 동일본 대지진 속에서 고립된 이민 여성들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원하는/받는> 관계가 아닌 구체적으로 외국인 주민과 <협력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보고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 배외주의, 수도권 집중 구조, SNS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의 상황 등의 문제가 제기된 동시에, 우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에 침묵하고 동조하며 가담하는 교회의 현실도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전환> 이란 주변화되고 배제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교회로 되돌리는 회개와 재구성의 과정입니다」라는 메시지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한 일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韓日교회 간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가와사키(川崎)에서 발생한 헤이트 데모를 계기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도를 계속해 온 저널리스트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가운데 증폭되는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데모에 대해 가와사키(川崎) 사쿠라모토(桜本)의 재일 한국인 주민들이 헤이트에 맞서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 처벌 조항을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가 만장일치로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신문은 헤이트에 맞서는 주민들의 마음,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에 담긴 정신에 연대하며, 차별에 명확히 반대하고 헤이트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기사와 편집 자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헤이트 데모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걸고 <함께 살아가자>고 호소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온 재일 한국인 주민들의 투쟁, 그리고 이에 연대하며 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지역 신문의 자세로부터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을 지키는 연결을 넓히고 끈질기게 호소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40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자 집회에서 외기협은 39년간의 운동 성과를 바탕으로 제3기 행보로 나아갑니다. 1980년, 외국인등록법에 반대하며 지문 채취 거부 목소리를 낸 재일 코리언의 혹독한 투쟁에 연대하며 외기협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지문 제도 전면 폐지를 앞두고 외국인등록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보호법을 대체할 인권 기본법으로서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이 본래 누려야 할 권리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생활자·지역 주민, 권리 주체로서의 외국인 시각에서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구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외국인 제도의 비인간성을 지적하고, 일본 사회와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성을 선교의 과제로 인식하며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달점을 바탕으로 외기협은 「외국인주민기본법」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본 기독교교회·기독교인이 담당해야 할 선교 과제로 인식하고, 각지역 외기련의 지역별 활동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의 조직이라는 외기협 운동의 특성을 살려, 제3기에는 각지역 외기련의 활성화와 외기련 간 및 사무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교파 간, 또한 한국 교회·아시아 교회·세계 교회 및 시민 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를 추진하며, 외국인 주민의 인권 확립을 위한 일지된 운동의 창출을 지향합니다.

또한 차세대 운동 주체와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젠더 정의의 관점에서 조직 및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삼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기협 운동의 목표와 과제의 총괄로서, 인종주의·식민주주의야말로 일본 기독교가 마주해야 할 근본적인 선교의 과제로 인식하고, 그 극복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오늘 와세다 봉사원 리버티홀을 장소로 「제40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인 집회」를 개최하여, 출입국·난민법의 개악으로 인해 이민·난민과 그 자녀들이 궁지에 몰리고 부당한 고통을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며, 배외주의, 헤이트에 맞서 외국인 주민과 연대하며 공동의 해방을 지향하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결의합니다.

2026년1월23일

**제40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복음신문에서 알립니다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의 기관지 「복음신문」(구 기독교신보)은 1951년 7월 창간호부터 2026년 2월 857호까지 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걸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모든 복음 신문을 PDF로 만들어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메뉴 바의 종합 자료)

그러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교회와 가정에서 발견하신 경우, 총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 결혼상담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마음을 다해 성혼까지 돌보겠습니다.**

代表 崔貞淑(神戸東部教会名誉勸士、경력 30년)

〒659-0012 芦屋市朝日ヶ丘町10-35-504

090-3429-9707